

대만에서의 당뇨병에 대한 P4P 프로그램*

-A Pay-For-Performance program for diabetes in Taiwan-



Shou-Hsia Cheng

Professor of Nat'l Taiwan Univ., Taiwan

1. Pay-For-Performance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Pay-For-Performance(P4P) 프로그램은 의료의 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료공급자에게 정해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의료의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여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P4P 프로그램은 의료의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의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P4P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미국에서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임상인들의 큰 참여를 얻지 못하였다. 이런 낮은 참여율을 감안하면 P4P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대만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99%이상의 국민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지불방법에 있어서는 총액계약제와 행위별수가제 등 여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P4P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당뇨, 결핵, 유방암, 자궁경부암, 천식, 만성간염, 고혈압 등의 질환에 도입하고 있다. 질병별 프로그램 참여율을 살펴보면, 결핵이 90%로 가장 높고 유방암이나 고혈압 등의 질병은 다소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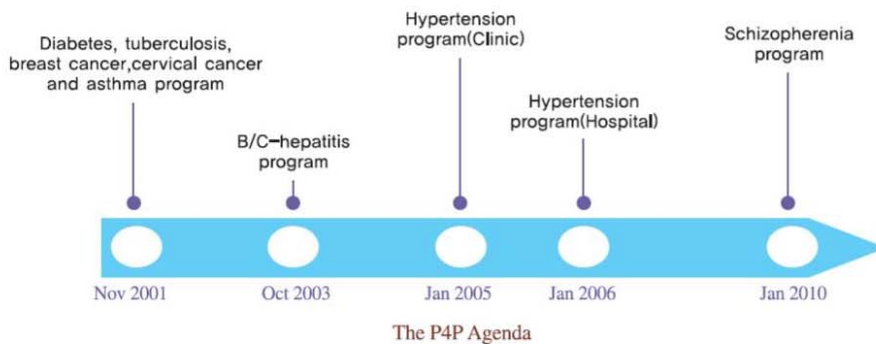


그림 1. 대만에서 P4P 프로그램을 도입한 질병들

* 원고정리 : 김경민 주임보연구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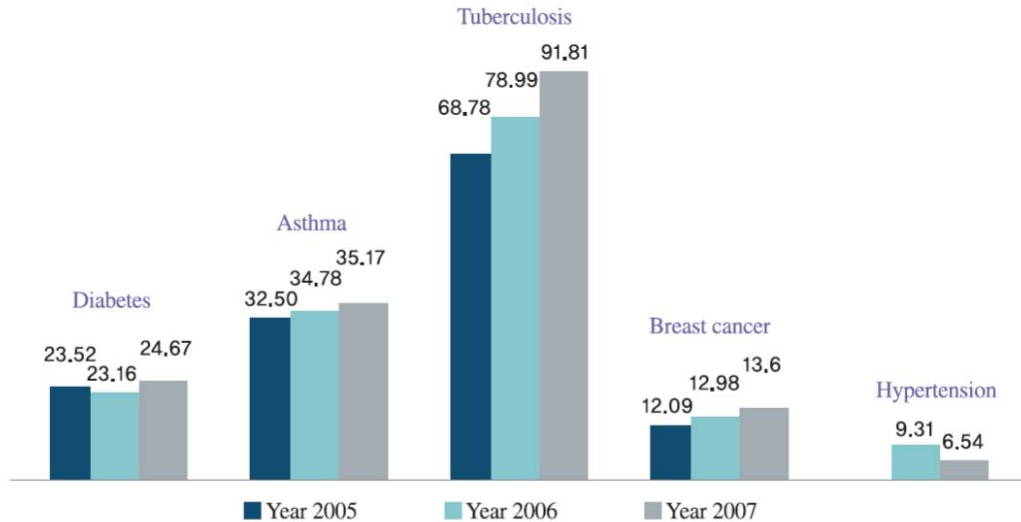


그림 2. 대만에서 질병별 P4P 프로그램 참여율 (2005-2007년)

2. 대만에서의 당뇨병에 대한 P4P

대만에서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2008년 현재 5번째 사망원인이며 질병비용은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 당뇨병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뇨병에 대한 P4P 프로그램은 의료기관 외래 재방문율이 증가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외래 방문을 통해 의사 등의 의료공급자가 환자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당뇨 및 합병증과 관련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P4P 프로그램의 대상 의료기관은 전문의가 속한 병의원이며, 당뇨병자가 그러한 병원을 방문 시에 전문의가 환자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당뇨 관련 의료이용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실시하고 재방문율이 높은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초기 참여 시, 재방문 시, 매년 재방문 시마다 지정된 검사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 실시 이후 필수적인 검사 실시율 및 재방문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체 의료이용 비용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감소의 폭이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기존에 P4P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으며 추후 P4P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및 의료의 질 및 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P4P 프로그램의 향후 목표

P4P 프로그램의 향후 목표로는 환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높이고 평가항목을 의료이용의 과정 평가에서 결과 평가로 차츰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평가 결과를 통하여 각 병원의 벤치마킹을 도모하기 위한 점수체계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